



사절인연	02
聞 _ 듣는 삶	04
부처와 부처끼리 • 부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숭주 한담	
진리로 피어나는 삶 • 문사수(聞思修) 법당을 전법원(轉法院)으로 이름하는 뜻 여여 법사	
思 _ 비추어 보는 삶	20
정토예불문(10) • 당신이 제일(第一)입니다 정신법사	
修 _ 닦는 삶	26
나의 인연이야기 • 새로운 법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화관 이수경	
• 수계 받은 날 화덕 전상호	
정진의 기쁨 • 새벽알이 성심 김승경	
삶의 향기 • 가을을 지나 겨울이네요 이현구	
나는 오늘...	37
불교 이해의 첫걸음	38
• 미타삼존불(彌陀三尊佛)을 모시는 이유(2)	
_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범정법사	
불교란	43
염불인의 메아리	44
구독 및 후원안내	48

시절인연 時節因緣



탐욕은 스스로를 탐욕할 뿐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못가져 안달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난리치며
바쁘지만 한시도 안심치 못합니다.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더 세상에 이름이 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단편집증(集團偏執症)에 걸렸는가?
제멋대로 그은 테두리 안에 갇혀서는,
너도나도 절규합니다.
“더 사랑을 받고 싶다.”
“더 인정을 받아야겠다.”
사는 게 팍팍하다며 말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삶을 삼켜버립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만 하니,
소유를 못하는 괴로움은 운명이 됩니다.

마치 살점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뼈다귀를 씹고 있던 개가,
딱딱한 뼈에 이빨을 다쳐서,
흘러내린 제 피를 핥는 형국입니다.

착각이 일어도 그게 착각인줄 모릅니다.
소유를 향한 충동에 계속 휘둘리지만,
막상 제 인생에는 도무지 무관심합니다.
물고기가 낚시미끼를 삼키면서도,
제 죽을 줄 모르는 격입니다.
나비가 불에 날아들어
제 업(業)으로 타버리듯,
이런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스스로 묶일 따름입니다.

그럼 탐욕은 무엇을 원하는가?
본래부터 존재한 적이 없으나,
소유의 덧에 걸려 소멸되기까지,
탐욕은 스스로를 탐욕할 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여여 如如 합장



부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법문_ 會主 한타

벌써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말이니 연초니 하면서 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떠들썩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편에서 나온 것이지 그 자체가 참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의로 만들어 놓은 연초니 연말이니 하는 세간의 기준이 우리가 유한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는 무한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저럭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덧 우리가 유한생명이라는 사실, 즉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불교는 나고 죽는 생사(生死)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윤회(輪廻)라는 것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인데, 나고 죽는 문제는 전부 괴로움이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생사 속에 있으면서 남보다 행복하게 산다든지 비교적 편안하게 산다든지 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무한절대생명인 그 영원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깨달았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참생명이 본래부터 무한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한생명으로서 매년 해를 넘기면서 연초니 연말이니를 되풀이하는 속에서 죽음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묘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만,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삽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데도, 육신을 중심으로 살면서 죽지 않는 생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니까 그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본래부터 무한절대존재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무한능력자인데 그만 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내가 죽도록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발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죽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생명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생명을 깨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참생명이 본래부터 무한절대라는 사실을 깨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사수법회가 연말을 맞이해서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을 살면서 그 사실을 모르면 육신에 얽매어 육신의 향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을 청산해버리고 육신에 자재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발심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깨달음으로 생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면 ‘아! 이 육신은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진을 해서 실제로 체험을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함께 동참하는 가행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행정진과 관련해서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래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나는 몇 촌간일까요? 항상 강조하지만 여래하고 나하고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1촌간입니다. 여래가 바로 우리 모두의 참생명입니다. 여기서 ‘수(壽)’ 자는 목숨 수자입니다. 생명이죠. 량(量)이라는 것은 길이를 말합니다. 여래수량품은 여래의 생명이 얼마나 긴가를 말씀해주신 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 전에 인도 가비라성에서 태어나셔서 한 80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생전에 훌륭한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

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도 진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고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을 유한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80년이라는 유한생명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인식하니 그렇게 되면 부처님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법화경의 여래수량품은 적실(的實)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대개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래(如來)라는 명호로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한하시어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여있지 않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여래 10호라고 해서 10가지로 표현됩니다.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부처님을 10가지로 불러 모시는데, 그중에서 여래라는 말은 특별히 법신생명을 드러낼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상대세계를 초월하셨으므로 이 양반은 절대 세계에 계십니다. 절대세계란 말은 온 우주 전체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에 두루 안 계신 곳이 없다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부처님을 내밖에 계신 분으로 알고, 훌륭한 성인이시니까 부처님을 따라 가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 분은 나와 대립해서 계신 분입니다. 나하고는 상대적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계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상대세계를 초월해서 있어야 부처님이십니다. 절대(絶對)라는 말은 대립이 끊어졌고 상대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대립이 끊어졌으니까 나하고도 대립이 끊어져야하고 나하고도 상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부처님은 내 밖에 별도의 세계에 따로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해진 면이 없지 않지만 그 말은 부처님과 나는 서로 1인칭의 관계이지 대립해서 상대적으로 있어서 2인칭이나 3인칭인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계속〕**

정리 보산 / 녹취 세원, 화산



문사수(聞思修) 법당을 전법원(轉法院)으로 이름하는 뜻

여여如如 법사

※ 정진원에서 열린 '2012년 문사수인 발심법회'에서 행한 법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심인(發心印)을 받았습니다. 이 발심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회는 특별한 사람이나 상황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부처님생명을 이어간다는 사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부처님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밝음을 비추신 이유와 그 가르침이 이 자리까지 이어온 과정을, 예불을 모실 때마다 되새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삼천년 전에만 '처음 진리의 바퀴를 굴리신[初轉法輪]' 과거의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와 곳과 사람을 만나는 만큼 항상 초전법륜이었습니다. 법바퀴가 구를 때마다 항상 새로워서, 새로운 법문을 듣는 새로운 법우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3,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한 찰나도 법바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법(轉法)입니다. 천하의 약수도 떠다놓고 먹지 않으면, 얼마 못가서 구정물이 됩니다. 제아무리 대단한 지식도 쓰지 않으면, 역사의 퇴적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수레바퀴가 돌 때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때와 곳과 사람을 만나는만큼
 항상 초전법륜이었습니다.
 법바퀴가 구를 때마다 항상 새로워서,
 새로운 법문을 듣는
 새로운 법우가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축(軸)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의 수레바퀴 축도 항상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만약 상황논리를 앞세워서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이기를 포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엄청난 사실만은 사람과 공간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법(佛法)이라는 진리는 반드시 굴러야 하고 흘러야하되, 분명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법회운동에 있어서, 3가지의 기본자세를 점검하기로 합니다.

첫째, 법이 굴러감에 있어서 지혜에 대한 안목이 밝아야 합니다. 지혜의 안목이 밝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되풀이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결론과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변화 그

자체인 몸과 재산 혹은 지위나 지식을 앞세우며 그저 바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태어나고 있는 삶의 생동성, 자기 생명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기에 끝없이 쫓기며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삶에 대한 지혜의 안목이 밝아지는 것은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법문을 들음으로써, 문혜(聞慧)가 밝아집니다.

둘째, 지혜에 대한 안목을 갖되, 근본이치에 투철해야 합니다.

지혜의 안목이 어느 날 세속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의해서 덮일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한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등등 온갖 비교상대의 세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경계 속에서 스스로 생각의 상호작용을 멈추어선 안 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들은 법문을 그 때마다 복기하고 자기 삶에 대입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근본이치에 흔들림이 없기에, 사혜(思慧)라고 합니다.

셋째, 기어코 부처님생명으로 살겠다는 뜻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문(聞)과 사(思), 듣고 생각까지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변화 그 자체인 내가 불쑥 솟으면, 처지가 돌변합니다. 본래 존재한 적도 없는 ‘나’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삶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한히 살려지는 사실을 외면하고는 마침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살려짐의 은혜를 잊어버



리니, 부처님생명으로 산다는 그 굳건한 마음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듣고 생각한 그대로 수정(修正)하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안목과 근본이치의 투철함 그리고 뜻의 견고성, 이 삼두마차가 사실은 하나가 되어, 법문 듣는 삶속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구른다(轉)고 합니다.

만약에 지혜만 있고 근본에 대한 천착이나 뜻에 굳건함이 없다면 뜬 구름 잡는 사람밖에 안됩니다. 지혜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새 지식으로 굳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만하면 지혜롭다는 착각에 휩싸여, 법문 듣기마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문이 뜻하는 바, 근본 이치에 대한 지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뜻만 있고 법문은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서 끝내 맹목성을 띠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홀로 식으로 수행을 한답시고 은둔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부처님 법대로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는 입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에게 대입되지 않는 법, 나로부터 실천되지 않는 법은 뜬 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를 먼저 만족시키고, 다음에 불법(佛法)을 따르겠다는 것은 뜬구름잡기입니다. 마치 신발을 신고서 신발 안에 있는 발을 긁으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의 근본

“지혜의 안목과 근본이치의 투철함

그리고 뜻의 견고성, 이 삼두마차가 하나가 되어
법문 듣는 삶속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구른다[轉]고 합니다.



인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근본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뜻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순간이라도 삶의 근원인 부처님생명을 떠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깨달음의 당사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뜻에 흔들림이 없고, 근본이치에 투철하면, 지혜의 광명이 항상 밝은 안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 수준을 알려면, 경계(境界)를 만났을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계와 마주하지 않고는 진짜인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간이란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로서의 경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를 외면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의 얼마큼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법이 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새로운 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안목이 밝아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숲이 무성하면 새가 모여들게 될 것이고, 연못에 물이 가득차면 달빛은 교묘하게 비출 뿐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성취의 옳고 그름을 따질 새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광명을 밝힐 뿐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법문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는 법에 대한 배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살려짐의 결과가 ‘나’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 와 만나는 모든 인연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또는 온갖 통신수단으로 연결되는 대중들에게도 밝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법은 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법(轉法)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법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언제 드러나는가? 현재에 드러나야 합니다. 부처님생명이 펄떡이는 순간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즉 시대에 상응해야 합니다. 이는 곧 시대(時代)의 옷을 입자는 겁니다.

부처님생명이라는 근본이치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나머지 상황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따름입니다.

왜 그러할까? 문혜(聞慧) · 사혜(思慧) · 수혜(修慧) 이렇게 삼

“**석가모니부처님이 행하신**

**초전법륜이 시대의 옷을 입고 실현되는
법당의 이름이 전법원입니다.**”

혜(三慧)를 통해서 완전한 지혜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들은 대로 거둬 비추어보며, 당연히 삶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닦는 게 아니라 닦여지는 삶, 그 길을 가는 것이 문사수 법우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뜻만으로, 법이 세상에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설법하는 법사(法師)가 출현하고, 형상화된 법당(法堂)이 등장하며, 마침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우(法友)가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옷을 입기에, 법당의 장엄과 모인 대중들의 모습이나 말투도 바뀔 것입니다. 때와 곳과 사람은 변화의 모습 따라서 그때마다 나타날 뿐입니다. 따라서 법당은 오늘날의 시대와 오늘날의 공간과 오늘날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생명의 축(軸)이 되어, 그로부터 수많은 부처님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사수법회의 법당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당은 불법이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가 표현되고 구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법이 구르는 때와 곳마다 법당이 열립니다. 그것이 부처님 법문을 들은 우리들이 살려짐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법문은 듣기에 그저 그럴 듯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참생명의 진리입니다.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자리가 바로 법당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뜻을 한데 모으니, 석가모니부처님이 행하신 초전법륜이 시대의 옷을 입고 실현되는 법당의 이름이 낫설지 않습니다.

“전법원(轉法院)”.

그래서 이로부터 모든 문사수법회 법당의 이름을 전법원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안에 있던 내용이 이제 겉으로 드러납니다. 법문 들을 때마다 수정합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탄이 넘치는 전법원은, 이제부터 또 새로운 바퀴를 굴러 갈 것입니다. 법우들이여, 우리 모두는 이 전법의 혜택자가 됨과 동시에 전법의 담임자입니다. 나로부터 전법원의 주인공이 되어, 전법을 하며 무한한 부처님의 출현을 맞읍시다. 그리하여 이미 인연 지었거나, 지금 인연 짓거나, 다음에 인연 지을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무아미타불! 南無

녹취 세원, 신지

당신이 제일(第一)입니다

정신 법사

부처님의 법이 인도에서 발생해서 세계 도처로 퍼져나가는 역사적인 전개과정은 실로 드라마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조화롭게 불법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여타의 다른 종교들처럼 정치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 강압적으로 전파된 형식은, 불교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진리(眞理)'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특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권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종(主從) 관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율가미와 같은 이데올로기나 고정관념 등을 정면으로 타파해 온 것이 불교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으로 복속해야 할 조물주로서의 신(神)이라든지 운명론적인 계급주의 등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정신적인 대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개개인이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구속당할 수 없는 절대 자유의 존재임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천 년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천 년은 긴 세월이 아닐 수 있지만, 인간의 종족과 문화와 문명들이 흥망성쇠(興亡盛衰)하는 과정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물며 불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3천년의 세월을 짊어지고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힘을 믿고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시간에 구속될 수 없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고 우주가 사라진다 해도 변함이 없어야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치시기 전에도 진리는 엄연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 진리를 부처님이 깨치셨기에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역사적으로 부처님 당시에만 유행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깨쳐서 증명해 오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일컬어서 깨친 이, 즉 성인(聖人)이라고 부릅니다.

정토예불문에서 여섯 번째로 지심귀명례할 대상이 바로 이 성인들인 것입니다.

至 心 歸 命 禮 靈 山 當 時 受 佛 付 囑
지 심 귀 명 례 영 산 당 시 수 불 부 촉

十 大 弟 子 十 六 聖 五 百 聖 獨 修 聖
십 대 제 자 십 육 성 오 백 성 독 수 성

乃 至 千 二 百 諸 大 阿 羅 漢 無 量 慈 悲 聖 衆
내 지 천 이 백 제 대 아 라 한 무 량 자 비 성 중

영산(靈山)은 인도의 영취산(靈鷲山)의 줄임말입니다. 인도 구 도여행 때 영취산에 실제로 갔었는데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처럼 정겹고 험하지 않았어요. 산 정상에 독수리가 막 날아가려고 날개를 펴는 듯한 모습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취산이란 불리웁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영취산에 주로 계시면서 대승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과 무량수경 등의 대승경전입니다.

그 산에는 자그마한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법회를 열고 법문을 듣고 수행한 도량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영산당시의 의미는 영취산에 계실 때만을 국한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부처님

께서 출현하셔서 법회를 열어 법문 하실 때를 통칭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문을 왜 설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깨치신 법을 전하여서 모든 존재들도 하여금 깨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역사적으로 열 분의 대표적인 제자가 계셨습니다. 사리불, 마하목건련, 수보리, 마하가섭, 아난, 가전연, 아나율, 라훌라, 부루나, 우파리 등이 바로 부처님의 십대제자로 불리어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치신 분도 계시고 오랜 수행 끝에 깨치신 분도 계십니다.



아난존자 같은 분은 부처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이기에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일컬어 집니다. 그런데도 가장 늦게 깨치셨다고 합니다. 한번 음미해볼 일입니다. 또 천안제일(天眼第一) 아나울존자는 법회 때마다 졸다가 부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서, 다시는 졸지 않으려고 눈꺼풀에 나뭇가지를 끼워 놓으면서까지 밤낮으로 수행하다 실명하였다고 합니다. 육안은 잃었지만 마침내 천안통을 얻으셨으니 그 정진력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신통제일 목건련존자는 부처님과 교단을 신통력으로 지켜온 호위대장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업(業)을 신통력으로 피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으시고는 그 이후로는 신통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자신을 시해하려고 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스승의 말씀과 진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외의 십대제자들에 얹힌 인연담과 수행담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그 자체가 법문입니다.

이 모든 분들은 당시에 부처님의 깨치신 진리를 스스로도 증득(證得)하셨고 세상에 이 진리를 널리 알리셨습니다.

십대제자들은 수불부촉하신 분들입니다. 즉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부촉은 부탁하여 위촉한다는 뜻입니다. 부촉한다는 말씀은 일부분을 떼어서 그 만큼만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십대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깨치신 법과 그 법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인 것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은 십대제자 분들은 각자 별명이 있습니다. 지혜제일 해공제일 설법제일 다문제일 신통제일 지계제일 등의 별명이 붙는데, 다 동일하게 제일(第一)이라는 찬탄의 칭호가 따릅니다. 요즘처럼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서 일등만 살아남는 비정한 현실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장을 십분 발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붙여지는 칭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과 비교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확인합니다만, 결국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러나 불법은 평등 속에서 차별을 말하니 제일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의 능력을 발휘하여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지키고 전파하는 이들이 십대제자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이라면 자신의 ‘제일능력’을 총동원해서 ‘수불부촉’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香友

녹취 김소원, 해심월, 최승연, 정월

새로운 법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화관 이수경

‘수계 난 예전에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에 생각 더하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구요.

‘그래, 교육이나 한 번 받아보자.’ 문사수에서 수계를 받을 인연이면 받아들이고 해보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에 가기를 좋아하였지만, 복을 구하면서 부처님과 거래하는 보살님들과, 그 보살님들 상대로 부처님 팔아 장사하는 스님들이 있어서 그냥 혼자 부처님을 알아가곤 했었는데, 문사수법회라는 곳에 오니 제가 생각했던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불현듯 부처님 뵈고 싶을 때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절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뵈던 부처님을, 정토마을이란 곳에 인연되어 여러 부처님생명을 많이 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

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숨 쉬는 것도,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하물며 같이 있는 가족은 두 말이 필요 없지요. 그저 감사뿐입니다.

지난 언젠가 남편과 크게 싸우고는 헤어지길 마음먹고 혼자 절에 갔습니다. 부처님께 하소연이라도 해볼 생각으로요.

삼배를 하고 나서 가만히 부처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피땀 흘린 한 달 월급을 나에게 몽땅 가져다주는 남편에게는 온갖 불평이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부처님께서는 뭔가를 구해 볼 욕심으로 열심히 절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으로 나투신 부처님을 친견했습니다.

그날 부끄러웠던 마음, 법회에서 다시 확인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법담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도반을 그리워 했는데, 그런 도반들도 저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법회를 찾은 그해 여름, 가행정진을 법사님과 법우님들과
같이 모시며, 법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도 하였습니다.

제가 전생에 복이 아직 남아 이런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려질 제가 부
처님생명으로 살아가길 발원합니다.

법명으로 새로이 수기 주신 부처님! 등불 밝혀 길 인도해주시
는 법사님들! 같은 길 서로 힘 나눠주시는 법우님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못다한 참회를, 해도 해도 끝없는 감사를, 화관 얹드려
오늘도 감사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
타불! 香支

수계 받은 날

화덕 전상호

“손해 많이 볼 텐데 괜찮겠어?”

회주님께서 나에게 계를 주시며 말씀 하신다. 순간 당황했다.
내 머릿속에서 당황해하며 멈칫 거릴 때 내 마음은 벌써 회주님
을 향해 “네”하고 소리치고 있다. 머리와 마음이 혼란스러웠는지
약간의 두통이 시작됐다.

그런데 두통의 느낌이 여느 때와는 달랐다. 통이지만 고통의
느낌이 아니었다. 수계를 마치고 염불 정근을 하고 있을 때 비로
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제서야 회주님께서 말씀
하신 의미가 떠올랐다.

처음 화덕이란 법명을 듣고 ‘덕으로 빛내는 사람이 되라는 말
씀인가보다.’ 하는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주님께
선 결코 겉으로 드러냄이 없는, 속으로 깊어지는 덕을 말씀하셨
기에 두통이 시작되었던 듯하다.



마치 숨기고 있는 것을 들켜버린 마음 내지는 ‘그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마음보다는, ‘알아주심’에 동요했었던 것 같다.

이제 나는 시작임을 안다. 모든 것을 행하되, 시작의 계기와 이유를 알지 못하면 행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많은 생각과 습이 나와 공존할 것이다.

화덕(華德)은 시작의 이유와 의미를 되새기며 끝이 없는 깊은 덕을 찾아가겠나이다. 나무아미타불! 南無

새벽앞이

성심 김승경

새벽공기가 이토록 신선하고 상큼했었던가?

새벽, 이 단어가 주는 묘한 기대감과 설렘...

사물이 깨어나기 전의 고요. 그 고요함을 깨고 자동차 시동을 건다. 차 안 공기가 쉼하게 코끝을 건드리며 어깨 한번 움츠리고 엑셀에 힘을 준다. 자, 출발~ 나의 법당을향해~~

새벽에 모시는 정진은 잠이 덜 깬 의식을 한꺼번에 여지없이 깨운다. 목탁 소리에 맞춰 예불문을 모시면서 굳었던 몸뚱이가 기지개를 켜고 잠겨버린 목소리를 따뜻한 감로수로 적시며 정진을 한다.

백팔배를 하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참회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하셨다는데...

알고 지은 죄는 참회라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각오도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기 때문에 죄의 무한반복을 하게 되므로 지은 죄가 더욱 크다고 하셨다는데. 나의 모르고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참회를 한다. 무한반복해서 참

회한다. 정진을 함이 소소한 나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뽀족하게 날을 세워 건네던 말투가 억지로라도 ‘부처님이다. 부처님으로 모시자!’ 이렇게 발원하고 나서부터 눈흘김도 줄어들었고, 날을 세워 통통거리던 말투도 사라졌다. 눈길도 부드럽게 변하니 오고가는 대화가 달콤하다.

정진하며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이 된다.

정진은 나의 두터운 업장을 녹여내는 일이다. 정진은 중생으로 살고 있는 나의 습기를 닦아내는 일이다. 정진은 부처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일이다.

새벽에 늘 정진하는 미락, 법락, 신지, 보명, 명심화법우님.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화행, 연희, 신희법우님.

같이 정진을 모시는 일이 이렇게 큰힘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열심히 정진하는 도반을 보며 나도 저렇게 정진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발심을 한다. 혼자서 나름 열심히 정진했다는 아만심에 빠져 있었던 나를 깨우쳐준 법우님들이기에 도반으로서 소중한 배운다. 정진할 수 있는 법당이 있음에 또한 감사한다.

홀로 하는 정진은

나무아미타불! ‘점심에 뭘먹지?’

나무아미타불! ‘00이는 뭐하고 있나. 전화해 볼까~?’

나무아미타불! ‘아우~~잡념 끝내고 다시!’



밝은마음합창단원으로 문사수합창제에서 공연하는 필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근데 지금 몇시나 됐나?’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고 하니, 슬그머니 일어나는 번뇌를 방치한다. 그리고 오늘도 정진했다고 안심한다. 불자로 살겠다고 선언했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불자였나보다. 뺏속까지 불자로 살기엔 나의 수행이 아주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나에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을 즐겁게 해보려한다. 온전한 불자로 설 수 있기를 발원하며....

부처님!

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픔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부처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香

가을을 지나 겨울이네요

이현구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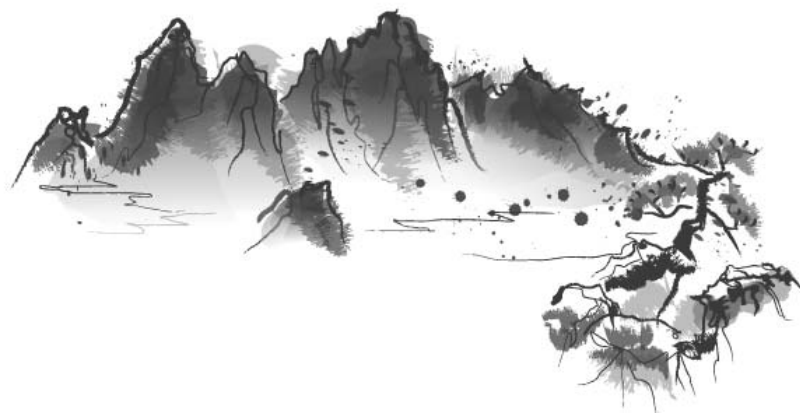
가을을 지나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 사유와 겹쳐로 가득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경전독송과 정진입니다. 노트북과 손전화보다 경전을 곁에 두고 하늘을 보며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북유럽의 작은 도시의 어떤 시장님은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히는 가로등을 얼마쯤 꺼버렸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별들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밝은 가로등이 시민의 안전과 범죄 방지를 위한 것임을 잘 알지만, 그는 낮 동안 지친 시민들이 밤의 광활한 신비를 느끼고 별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인 같은 상상력을 갖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시 '푸르른 날')

지구 위에 한국의 시인 [미당]서정주 말고, 세계의 어떤 시인도 단풍을 향해 초록이 지쳐 단풍 든다고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녀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시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이 겨울이 소소하고 느리고 검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모두 과잉한 것, 짙은 것에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친 속도와 물량 중심의 사고에 함몰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컴퓨터, 너무 많은 쓰레기, 너무 많은 자동차, 너무 많은 속도, 애국심, 음모, 커피, 성범죄, 뻔뻔함, 억울함, 거짓, 부패, 패거리가 있습니다. 빠르고 많다는 것이 우월의 표지는 아닙니다. 속도와 물량은 때로 결핍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무참히 앗아갑니다.

너무 부족한 고요, 너무 부족한 겸손, 너무 부족한 배려, 너무 부족한 지성과 진실, 나눔, 독서, 침묵, 기다림, 절제...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 경전독송과 염불정진에 매진하고 법사님 법문에 귀 기울여 집중합시다. 우리의 신심이 건강한 다음에 지성도 살찌워야 하지 않을까요?

나무아미타불! 法友

나는 오늘...

※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법문을 들었는가?

나는 오늘, 살려지는 은혜에 감사하였는가?

나는 오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였는가?

나는 오늘, 나에게 닥친 모든 현상을 전면수용 하였는가?

나는 오늘, 원인을 짓는 인연의 주인공으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는가?

나는 오늘, 염불을 놓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다만 만족하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법회와의 인연에 감사하였는가?

나는 오늘, 부모와 국토와 스승과 이웃의 은혜를 기억하였는가?

나는 오늘, 정진일과를 실천했는가?



미타삼존불(彌陀三尊佛)을 모시는 이유(2)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관세음보살과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을 함께 모신 상태를 미타삼존불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 관세음보살이 뜻하는 바에 관하여 지난 11월호의 지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대세지보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호에서 아미타불을 태양에 비유한다면, 태양에서 발산되는 파스한 열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라 할 수 있고,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빛은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보살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음보살과 마찬가지로, 대세지보살이 뜻하는 바도 상호(相好)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상호는 동일한데 한 부분이 다릅니다. 관세음보살이 머리에 쓰고 계신 보관(寶冠)에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데, 대세지보

살이 쓰고 계신 보관에는 보배병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보배병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 예전 조사스님들께서는 그 병 속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유골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척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의 내 생명은 수많은 조상님들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수많은 조상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조상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상님 한 분마다의 선택이 지금의 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가늠해보려 해도 2의 n제곱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조상님들의 수를 도저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축적된 결과가 오늘의 나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인연 지은 모든 생명들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존재임을 짐작케 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의 유골이 담긴 병을 항상 머리에 정대(頂戴)하고 있다는 것은, 인연 지은 모든 생명들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다운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인연 지은 모든 생명들에 의해 무한히 살려지고 있음을 알기에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직 자기의 노력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지식과 체험을 절대화하며 '나'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살기는 하지만, 인연 지으며 살아가는 다른 많은 생명에 대한 교류를 단절한 채, 자기가 선택한 삶의 영역에 테두리를 그어놓고 오직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삶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설정한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는 자기만족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나'라는 테두리에서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성장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마치 붉은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설정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닫힌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닫힌 가운데 어두운 삶을 살지 않도록 밝은 지혜광명으로 다가오는 분이 바로 대세지보살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둠을 없애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본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어둠일지라도, 빛 한 줄기가 비침과 동시에 어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는 법입

니다. 어둠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둠은 실재하지 않고 본래 우리는 밝은 삶을 살도록 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분이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대세지보살의 가피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힌 삶을 살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대세지보살은 '나'에게 있어서 역경(逆境)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잘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난관에 처할 때도 있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스스로 설정해 놓은 틀 안에 갇혀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때야말로 제대로 살려지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정신없이 내달리기만 하는 삶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역경을 만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대세지보살의 지혜광명을 받아 본래의 생명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식으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생명의 교류를 단절한 채 스스로 설정해 놓은 틀 속에 갇혀 어쩔 줄 몰라 하는 가련한 신세에 안주한다면, 이는 자기의 참된 생명가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대세지보살은 역경이라는 모습으로 다가가 진정한 지혜를 일러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에 의해 살려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法友

정리 법정법사

전법용 소책자 '불교란?'

불자님들의 소중한 보시금으로 제작되어, 무료로 법보시되고 있는 '불교란?' 소책자가 어느덧 4쇄 4만부가 발행되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문사수법회에서 기획 제작한 전법서로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보내드리오니, '불교란?'을 통해 소중한 분들과 부처님 인연 맺으세요!



무료책자 신청 및 법보시 문의 031-966-3581, 010-2387-6305

- 전자책(e-book)으로 '불교란?' 만나기
 - 1)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인터넷서점에 접속합니다.
(yes24,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리디북스)
 - 2) 무료 전자책(e-book) 코너에서 '불교란?'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후원 동참 계좌 하나은행 292-910001-7080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국민은행 161601-04-001600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법보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란?'을 통한 인연 이야기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msspub@munsasu.org)

2012 문사수 가행정진

聞 思 修 加 行 精 進



정진(精進)합시다.

정진은 정성으로 한 걸음 나아감입니다.

정진은 전력투구이기에 늘 성취입니다.

그래서 문사수법회는 언제나 정진 중입니다.

그러므로 새삼 가행(加行)정진을 발원합니다.

모두 동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회 향 : 2012년 12월 30일(일) 오전 10시 30분

*상세한 정진 일정은 각 지역법당으로 문의해주세요.

* 11월 18일에 발원하여 현재 정진 중입니다.

정진방법 1. 가능한 한 법당에서 대중들과 함께 합니다.

2.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정진순서 • 예경(정토예불문&삼귀의)

*삼귀의를 모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리한 법당' 도 함께 모십니다.

• 법공양(금강경,아미타경,보현행원품)

• 발원(정진발원문)

• 염불정근과 108배(나무아미타불 염불은 2,000년 이상)

• 개인축원(개인의 구체적인 원을 부처님께 드러냅니다.)

• 범우찬탄

• 사홍서원

* 문사수법회 법요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일 정진이 끝나고 나면 '감사헌공' 봉투에 보시금을 넣고, 회향법회 때 불단에 올립니다.

나눔의 날 '동지'

일년 중 가장 밤이 긴 날,

그러나 이 날로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께서는 '작은 설'이라 부르며

기념한 날이 바로 동지(冬至)입니다.

본래부터 밝은 부처님생명이 우리의 참생명입니다.

두려움과 어둠이 있다면,

정진의 힘으로 참생명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나의 참생명은 오로지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부처님생명이므로

오직 빛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광명의 날,

동지를 맞이하여,

주위분들에게 광명을 나누어주어서,

참생명의 실상을 모두 함께 누립니다.

나무아미타불!

※ 동지 기념법회: 2012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2012년 송년법회

어느새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정진에 게으르지는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가는 한 해
부처님의 가피로 살려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다가올 한 해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무한능력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발원합니다.
늘 정진하시는 법우님을 찬탄드리며
2012년을 총 결산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합니다.

중앙법당 · 대전법당 : 12월 23일(일) 오전 10시 30분
정진원 : 12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새날맞이법회

늘 새로움으로 맞는 오늘입니다.
‘오! 늘~’ 이 되고 계신지요.
한 해를 여는 첫 시간도
부처님께 예경 올리며
정진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일시 : 12월 31일(월) 오후 9시 30분

2012년 문사수 경전학당

『영원한 생명의 길, 법화경』 회향

지난 일년동안 진행되어온 ‘영원한 생명의 길, 법화경’이 회향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원만하게 회향하시는 법우님들을 찬탄드립니다.
그동안의 공부를 정리하고 되새기는 회향법회를 통해 법우님들의 일상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지니어 받들고 행하는 생활로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중앙법당 회향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오전반) / 오후 8시(저녁반)

☒ 대전법당 회향

2012년 12월 21일(금) 오후 8시

※ 회향법회 공양 및 보시 발원은 각 지역법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문사수 경전학당 안내

2013년 문사수 경전학당에서는 화엄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온 세상이 온갖 꽃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새해부터 펼쳐지는 무한생명의 꽃밭에서
무량공덕의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 여여법사(문사수법회 대표법사)

문의 문사수경전학당 교학처

전화 031)966-3581 | 팩스 031)966-3584 | mssac@munsasu.org



월간 진리의 법, 법우 정기구독 및 후원 안내

월간 '진리의 법, 법우'는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는 전법지이며, 밝은 삶을 누리게 하는 신앙지입니다.

▶ 전화 신청 Tel. 031)966-3581~2

▶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Fax. 031)966-3584 E-mail. msspub@munsasu.org

▶ 정기구독료 (1부 : 2,500원)

1년 : 30,000원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161601-04-002227

(사)문사수불교문화원

농협 1103-01-03535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대표전화 : 031)966-3581~2, 010-2387-6305 • 팩 스 : 031)966-3584

• 이 메 일 : msspub@munsasu.org

• 우 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9-1 무원빌딩 8층 문사수법회

전국의 군부대, 교도소,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발행부수의 50%이상을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법보시에 동참해주신 모든 법우님의 행복과 무한성취를 기원합니다.

〈CMS(자동이체) 후원 안내〉

자동이체를 통해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불법 홍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31-966-3581, 2

▶ 보시금을 내주신 분들을 찬탄드립니다! (2012. 10. 21 ~ 11. 20)

〈구독신청〉 김진경 김향식 손미홍 윤정태 윤여경 임관용 정미숙 채진연 법우님

〈후원(법보시)〉 화주님, 여여법사, 정신법사, 명성법사, 등관법사, 범정법사, 범해법사, 범활법사, 범열법사, 중앙법당, 대전법당, 정진원, 김동숙, 김양모, 김영자, 김종성, 김추옥, 김향식, 김홍양, 문현숙, 박부현, 박안덕, 박종원, 불광한의원, 손미홍, 양선옥, 유진옥, 유현성, 이덕수, 이상백, 전상호, 전철균, 정경옥, 조영숙, 채진연, 최동윤, 최동재, 최세현, 최옥순 최향순 법우님 외 무기명 다수

※ 지난해 후원보시 명단에서 유진옥 법우님 성함이 누락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